



## 함께 만드는 희망세상

희망세상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동참 한다는 의미에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자발적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연간 1만 원이며 그 이상의 정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5601-04-019001  
농협 013-01-298022  
예금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60년 4월 19일, 그날

4월혁명은 맨 주먹밖에 가지지 못한 민중이 강압적인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혁명이었다. 기성세대나 기성 권위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있던 학생들이 4월혁명의 선두에 나섰다. 이 혁명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루어졌다.

4월혁명은 독재정치와 부정축재에 반항하는 국민의 힘이 젊은 의기를 통하여 발현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었다.

글 이기백 『한국사신문』 중에서  
사진 김천길

## 4월의 역사적 교훈

1975년 4월 9일은 이른바 인혁당 조작사건으로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송상진, 우홍선,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등 여덟 분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날입니다. 꼭 33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4월 9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치입니다.

상징론에서 33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네 일상적 삶에서 삼세번이라는 강조 어법과 같이 3이라는 숫자는 완결의 숫자이며 33은 그 이중적 완결 또는 행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는 3위 1체의 신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33세라 하여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숫자의 상징론에 기초하여 4월 9일 총선에서 그 어떤 희망을 확신합니다. 여덟 분의 죽음을 기리는 33주년 기념제가 우리 모두를 위한 재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희망세상』가족과 함께 시대정신을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사실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술한 의로운 분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희생된 분들의 부인, 자녀, 형제자매, 친척, 동지들의 아픔과 절규는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33년 매일 매일의 삶이 바로 고통의 삶, 아픔의 반복이었으니 말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어이없이 죽어간 술한 유대인들은 수용소 담벼락에 “하느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는 절망스러운 글귀에서부터 “그래도 정의는 이긴다.”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아라!”라는 신념과 기도를 써놓았습니다. 잔인한 히틀러 정권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4월 9일은 바로 불의한 재판,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우리는 새삼 되새깁니다. “일부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아직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거짓 신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33년 전과 똑같이 검찰 등 불의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 권력이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지만 그것 또한 언젠가 만천하에 밝혀질 거짓이며 허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4월 9일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4월은 또한 4·19민주혁명의 달입니다. 48년 전 사건이 이제는 우리에게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대를 살았던 이들도 희미하게 기억할 뿐 그 정신을 생생하게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으니 후대 젊은이들의 경우 어떻게 4·19정신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4·19 명령 앞에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4·19 민주혁명이 박정희의 1961년 5·16군사반란으로 한때 무참하게 짓밟혔었다는 역사적 부끄러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5·16군사반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우리의 현실은 4·19민주혁명 정신이 제대로 꽃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통해서만 성숙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19민주혁명정신은 18년 동안의 군사유신독재를 종식

하고 1980년 민주항쟁과 19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비로소 그 첫 단계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할 때입니다. 높이뛰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역사와 현실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함께 되새깁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주의를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애썼던 많은 동지들이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로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사건을 종교신학에서는 신의 섭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신의 섭리는 꼭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투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4월에 4·19 명령들이 참된 민주주의와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투신하도록 우리 모두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4월 정신, 4월의 숨결이 바로 우리 겨레의 생명이며 열입니다. 4월 정신으로 민족 통일을 지향합니다.